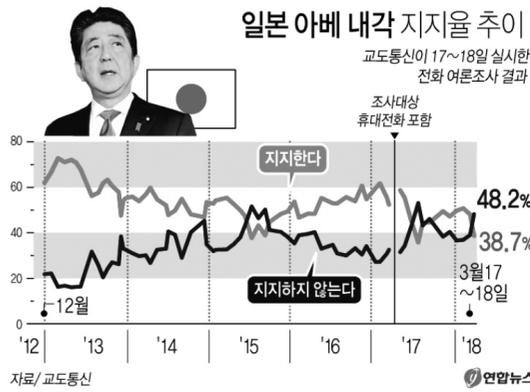


‘문서조작’ 아베 지지율 추락...3연임 빨간불

13%P 급락...2차 내각 최저치 日 국민, 사학비리 불신 커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학스캔들과 관련된 재무성의 문서조작 파문으로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3연임 가도에 적신호가 켜졌다. 재무성이 최근 모리토모 학원의 국유지 월값 매일 의혹과 관련해 문서 조작 사실을 인정하면서 지지율이 30%대 초반으로 급락하는 등 총격파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1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난 17~1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31%로 한 달 전 44%에서 무려 13%포인트나 떨어졌다. 이는 2012년 12월 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최저치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8%로 지지율보다 높았다. 아사히 조사는 지난 7월 아베 내각 지지율이 33%로 떨어진 이후 8개월 만에 이보다 낮아진 것이다. 당시에는 아베 총리의 또다른 사학스캔들인 가계학원의 수의학부 신설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여당인 자민당이 최악의 참패를 기록했다.

앞서 닛폰TV가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아베 내각 지지율은 한 달 전에 비해 13.7% 하락한 30.3%로 나타났다. 이 역시 아베 2차 내각 출범 이

후 실시한 조사에서 최저치였다. 또한, 마이니치신문이 같은 기간 실시한 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12%포인트 하락한 33%였다. 일각에서는 내각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해 사학스캔들로 인한 지지율 급락을 만회하고자 9월 말 중의원 해산 후 실시한 10월 총선거에서 승리했지만, 최근 사학스캔들과 관련한 문서조작이 드러나면서 또다시 위기에 내몰린 상황이다. 이번 아사히 조사에선 문서 조작이 아베 총리에게 책임이 있는지는 질문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총 82%나 돼 높은 불신감을 보여줬다. 아베 총리가 국회에서 재차 자신과 부인 아키에 여사는 스캔들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이를 '납득할 수 없다'는 응답은 72%에 달했다. 아키에 여사가 이 문제를 국회에서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는 질문에 65%가 그렇다고 답했다.

아베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는 올해 가을 이후에도 당 총재직을 계속하기를 바란다는 응답은 31%에 그쳤고,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는 대안이 53%였다. 아사 다로 부총리 겸 재무성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50%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36%였다.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당나라 재상 장가정

장가정(張嘉貞, 665-729)은 산서성 의지 출신으로 자는 가정이다. 현종 때 요승, 송경에 이어 재상에 올랐다. 관직생활을 시작해 하북성 평양현위가 되었다. 702년 시어사 장순현이 그가 특별한 재주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불러 주문(奏文)을 쓰게 했는데 남들이 생각지 못한 내용이 풍부했다. 측천위제에게 관직을 주도록 청해 감찰사 직을 제수했다. 이후 병부원외랑, 중서시인을 역임했다. 산서성 태원의 병주장사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돌궐 대책을 내놓았다. 717년 "돌궐 필즉 중 새로이 함복한 사람들은 태원

태원, 최훈, 원가정 등 네 명의 부하를 크게 신임해 조정에서는 이를 '네 명의 아들'이라고 호보았다. 722년 광주도독 배주선의 죄를 놓고 중신들이 대립하였다. 그는 장형(杖刑)을 줄 것을 요청했다. 장형이 이에 반대하며 주장하기를 "신이 듣는데 형벌은 대부에 게까지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황제가 가까이 있으므로 염치를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대부를 죽일 수는 있지만 지육을 줄 수는 없습니다." 황제가 장형의 말을 따름에 따라 둘 사이에 양금이 남게 되었다.

그는 문제가 누적된 군역제도(軍役制度) 개혁에 나섰다. 당나라는 부병제를 채택하고 있었는데 평소에는 농사에 종사하다가 부르면 군에 가서 봉살하는 방식이었다. 21세에서 60세가

군제 개혁 앞장...동생 비리로 좌천

이북에 흩어져 살고 있으므로 많은 병사를 주둔케 하여 그들을 다스리도록 하십시오"라고 주청해 8만명을 모집했다. 모병은 그가 천병군대사를 겸주도록 했다. 718년 그가 군대에서 사치하고 교만하며 뇌물을 받았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조사결과 사실무근으로 드러나자 현종은 고발자를 처벌하려 했다. 그가 주문을 올려 말하기를 "지금 만약 죄를 준다면 언로가 막히게 되어 천하의 일이 위로 보고되는 일이 없어질 것이므로 바라건대, 특별히 용서해 주십시오." 황제가 이로 말미암아 충성스럽게 생각해 중용할 마음을 갖게 되었다.

720년 불랑화폐인 약전(惡錢) 문제로 백성들의 불만이 커지자 재상 송경을 파직하였다. 원근요를 수석재상으로 삼고 장가정을 차석재상으로 발탁했다. 현종은 그에 대한 기억이 뚜렷하지 않고 단지 북방 지역의 절도사라는 기억만 떠올랐다. 중서시랑 위항을 불러 물어보았는데 삭방절도사 장제구의 이름이 나오자 그를 임명하는 조서를 쓰도록 했다. 위항이 물러난 후 대신들의 소장 열람하던 중 장가정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위항을 불러 임명조서를 다시 쓰도록 하명했다고 한다. 원근요는 원만한 성품의 인물인 반면 장가정은 단호하고 추진력이 강했다. 자연스럽게 그가 내각을 주도하는 형식이 되었다. 묘연사, 여

지가 모집 대상으로 종신제에 가까웠 다. 장군과 장교들이 군인들을 자기집 하인처럼 취급해 가서 일을 시키고 봉록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원성이 자자했다. 그는 북무기간을 25세에서 50세로 단축해 백성들이 교대로 군대에 복무하도록 개선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

723년 동생 금요장군 장가우의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돼 파직되고 유주 자사로 좌천되었다. 이후 호부상서 익주장사 공부상서 직을 역임한 후 729년 세상을 떠났다. 견사지행(牽絲之牽)이라는 고사가 있다. 관리 곡원진이 그의 신망을 받아 자신의 말 다섯을 각기 실을 잡고 늘어지도록 한 후 하나를 잡아 당겨 셋째 말과 혼인하게 했다는 일화다. 그는 평소 재물에 관심이 적었다. 누가 그에게 농지와 택지를 사도록 권유하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장상이 되었는데, 어찌 출고 배고픈 것을 걱정하겠는가? 만약 그러다가 죄를 짓는다면 비록 땅과 집이 있더라도 쓸 곳이 없다. 관리들이 좋은 농지를 넓게 차지하는 것을 보면서, 죽으면 무뢰한 자식들이 술 먹고 여색에 빠지는 밑천이 될 뿐으로 갖지 않는 것이다." 요승은 조정에 능했고 송경은 법률에 소상했으며 장형은 문치에 뛰어났다. 그는 관리에 출중한 재상으로 평가받았다.

수난의 '올리브 언덕'

터키군이 18일(현지시간) 시리아 북서부의 쿠르드 지역 아프린을 점령한 가운데 터키 지원을 받는 시리아 반군 조직원들이 상점에서 물건을 훔쳐가고 있다. 쿠르드인의 삶의 터전으로 예로부터 '올리브 언덕'으로 불리던 아프린은 터키군 공격 전까지 정주민과 유입된 난민을 합쳐 35만~70만 명이 사는 안식처였으나 이날 터키군과 시리아 반군 조직원들의 수중에 들어가면서 무법천지로 변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선 압승

연도	대통령	득표율
2000	3대 대통령 (푸틴 17)	53.4%
2004	4대 대통령 (푸틴 27)	71.3%
2008	10대 총리 (3연임 금지 헌법으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에게 대통령직 넘김)	63.6%
2012	6대 대통령 (보리스 옐친 대통령에 의해 총리 대행으로 전격 발탁)	63.6%
2018	7대 대통령 당선 확률(47)	76.41%

출생: 1952년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법학과 졸업, KGB 요원 활동

1975년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법학과 졸업, KGB 요원 활동

1993년 연방보안국(FSB) 국장

1999년 6대 총리 (보리스 옐친 대통령에 의해 총리 대행으로 전격 발탁)

자료/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르 푸틴’ 76% 득표율로 대통령 당선

블라디미르 푸틴(66) 러시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열린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했다고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다.

선관위는 푸틴 대통령이 99% 개표 결과 76%의 지지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지금까지 푸틴 대통령을 지지한 것으로 집계된 이들의 수는 5620만명을 넘어섰다. 푸틴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4560만표, 2004년 대선에서 4956만3000표를 얻은 바 있다.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로부터 병합한 크림반도에선 무려 92%의 득표율이 나왔다.

푸틴에 이어 2위는 11.8%를 얻은 공산당 후보인 파벨 그루디닌(57)이 차지했으며 다른 6명의 후보는 5%대 미만의 저조한 득표율을 보였다. 이번 대선에서 푸틴이 달성한 득표율은 역대 선거

에서 그가 얻은 최고 기록이다. 푸틴은 2000년 대선에서 52.94%, 2004년 대선에서 71.31%, 2012년 대선에서 63.6%를 얻은 바 있다. 이번 대선의 투표율은 67.4%로 잠정 집계됐다.

러시아 상원 의원 알렉세이 푸슈코프는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푸틴을 악마화하려는 서방의 시도가 러시아에서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면서 "푸틴을 둘러싸고 유례없는 결집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모스크바 고등경제대학 교수인 정치학자 올렉 마트베이체프는 최초의 여성 대선 후보인 방송인 크세니야 소브차크(36) 등 일부 야권 후보들이 지지를 확보를 위해 애쓰는 동안 대표적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41)가 선거 보이콧을 주장하는 등 야권이 분열된 것도 푸틴 압승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7(중심상업지구) 토지: 912,50㎡ 건물: 1,477,64㎡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85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1,349㎡ 건물: 1,350,03㎡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60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191,03㎡ 건물: 728,97㎡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 27억 광주법원 정문 앞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 7,662.4㎡ 건물: 6,864.61㎡ 지상 3층 매매가 95억 (보증금 4억2천, 월차임료2천6백만 - 사우나 · 휘트니스 직영 중) 대로변, 아파트밀집지역, 복합사우나건물, 대출60억
- ★ [건물] 광주 동구 장동 (준주거지역) 토지: 136,20㎡ 건물: 265,58㎡ 지하층 지상3층 매매가: 12억 대로변, 아시아문화전당 맞은편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 3,104.6㎡ 건물: 11,543.18㎡ 지상9층 매매가: 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근린상가·요양병원(350베드이상) 적합-(상가와 요양병원 복합도 가능)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북구 운암동 토지: 2,769㎡ 건물: 3,793㎡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70억 병원, 학원, 사옥 적합 (중증가능)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 619,62㎡ 건물: 1,458,86㎡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접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산수동 토지: 596,70㎡ 건물: 948,58㎡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23억 사옥적합(전시효과 최상), 대로변, 안질환도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 514,40㎡ 건물: 2,143,08㎡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 2,756㎡ 건물: 3,568,32㎡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56억 상담 후 결정
- ★ [의료시설] 광주 서구 농성동 토지: 2,319㎡ 건물: 3,998,33㎡ 지상5층 매매가: 65억 도로변, 광주 신세계백화점 인근

경매 추천 물건

- ★ 광주 광산구 장덕동(근린주택) - 지상3층 토지: 340,4㎡ 건물: 510,09㎡ 감정가: 721,968,950원 최저가: 505,378,000원 수완지구, 다가구주택밀집지역
- ★ 장성군 삼서면 두월리(공장) 토지: 27,403㎡ 건물: 1,454,36㎡ 감정가: 1,706,257,600원 최저가: 1,194,380,000원
- ★ 영광군 군서면 송학리(공장) 토지: 2,329㎡ 건물: 844,08㎡ 감정가: 1,024,812,000원 최저가: 367,292,000원
- ★ 담양군 담양읍 삼다리(숙박시설) 토지: 3,319㎡ 건물: 2,480,7㎡ 감정가: 3,024,288,500원 최저가: 1,693,602,000원
- ★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숙박시설) - 무인텔, 2개동(32개실) 토지: 3,673㎡ 건물: 3,037,52㎡ 감정가: 3,744,229,960원 최저가: 1,677,415,000원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